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정책

2022. 8. 12.(금) 14:00~18:00

더케이호텔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목 차

주제발표

- 학생에서 교사로 1
(바수데비, 성저초등학교 교사)
- 志(뜻 지), 修(닦을 수) 뜻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7
(김지수,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재학생)
-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13
(박찬영, 인천대학교 조형미술학부 재학생)
- 슬기로운 한국생활 17
(권녕일, 영상촬영기사 프리랜서)

종합토론

- 다문화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23
(조혜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방안 27
(안복현,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장)
- 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변화 요구 33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 공감과 도약 37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사)
- 기회를 주는 한국사회, 기회를 얻다 41
(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이주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 47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학생에서 교사로 - 나의 다문화 이야기 -

(바수데비, 성저초등학교 교사)

학생에서 교사로

- 나의 다문화 이야기-

바수데비(성저초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성저초등학교 교사 바수 데비입니다. 성이 바수이고 이름이 데비입니다. 아버지가 인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셔서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처럼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세 글자 이름이 아닌 이유를 항상 설명하며 26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문화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나라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는 이름이 평범한 세 글자 한국 이름이거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 국적의 부모님을 두어 다문화가정인 것이 표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달리 이름도 특이한 네 글자에, 외모도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딜 가든 제 이름과 더불어 부모님의 국적을 소개했고, 잇따라 더 많은 개인적인 질문,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한 질문들을 받기도 해왔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는 이름과 제 국적만 말해도 그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름과 함께 부모님의 배경까지 설명하고 질문받으며 살아온 저에게 이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자들끼리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에 집중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한국에서의, 특히나 제 나이대에서 특이하다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나라는 사람 그 자체만 남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들끼리는 서로 다름이 당연해서 더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일민족과 그에 대한 자부심의 역사가 긴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이 사회의 일부를 구성한 지 오래지 않았기에 다문화가정이 아직도 흔하지 않고, 특이해 보이고, 달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다문화가정인데도 교사가 되다니 대단하다.’는 시선으로 저를 보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씩씩합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인 어머니와 인도인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인도로 이주해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영어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저는 인도에서 살다 온 이국적인 외모의 신기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전혀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놀리거나 따돌리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잘 적응해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교우관계는 항상 원만했고, 학업 성적도 늘 우수했기에 즐겁게 생활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도 모두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출신이기에 주목받고, 늘 “힘들었던 경험, 차별받았던 경험, 고난과 역경”을 인터뷰에서 질문받습니다. 없었다고 답하면 정말 하나도 없었는지 되묻거나, 작은 고난과 역경 하나라도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늘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답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방송에는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늘 슬픈 배경음악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정의 부정적인 단편만 조명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종종 저에게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지원이나 장학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권한다는 맥락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지내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똑똑하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하고도 잘 지내는데 왜 도와주려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모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며 처음으로 저와 제 동생이 아닌 다른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어 과정과 과학 과정으로 나누어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발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한 달에 한번 카이스트에서 과학 캠프를 했습니다. 이때 만난 다문화가정 친구들도 모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소위 줄여 부르면 사배자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만난 다문화는 모두 도움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왜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 이해되지 않았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문화 관련된 정책의 수혜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도 입시에서 다문화 배려 전형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할지 고민하다가, 입학 초 저는 '나는 다문화는 절대 안 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문화와 떼어놓고 보면 저는 그 자체로 유능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느껴 온 다문화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대생이 된 이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문화의 또 다른 단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다문화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며 이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사로서 교실에서 매년 평균 두세 명의 다문화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전의 저처럼 조금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한국어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의 다짐과 달리 지금 저는 자꾸 다문화 교육을 생각하고, 다문화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꼭 읽어보고, 댓글까지 하나하나 살피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 사회가 이미 마주한, 앞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올 현실입니다. 다문화 학생이든 비다문화 학생이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공교육의 역할을 매일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꼼꼼이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직접 누린 지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6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장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으로 받은 지원은 모 대기업의 캠프였습니다. 좋은 호텔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초대해 신나게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선물을 안겨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시혜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은 다문화 학생의 성장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을뿐

더러, 되려 다문화가정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증폭시킵니다. 그렇기에 정책을 개발하고 펼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에게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지, 시혜성 정책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10년, 중학교 3학년 때에 모 기업에서 진행한 다문화학교 과학 인재 양성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적응 수준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모두 하나의 범주로 묶어두고 단일화된 정책을 제공하니 일부 다문화 학생에게는 필요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기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새달랐습니다.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 대상이 아닌, 잘 적응한 다문화 학생의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성장형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캠프는 과학 인재 과정과 언어 인재 과정,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히고 교육적 갈증을 해소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진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정책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20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형-적응형-성장형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다양화된 지원 계획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2013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다양한 입학전형을 알아보던 와중 다문화 전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가 다문화 학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한국인인 어머니께서 저를 양육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지 않기에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다문화 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었기에 입시에서 불이익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때 다문화가정의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또한 지금은 우리 정책이 반영되었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혜자로서 과거에 보아 왔던 다문화정책과 현재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형과 상황의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나 여성가족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알아가며 우리 정책이 많이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적재적소에 잘 제공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낀 정책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사나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어떤 정책이 존재하고 어떤 장구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매일 수많은 공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학기 초 다양한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이 공문 접수되지만, 그것을 모두 기억해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문이 접수된 시기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감지된 시점이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 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종류와 신청 경로는 다누리 포털에서도 한눈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교원 대상 다문화 연수에 참여하고 여성가족부 회의자료에 정리된 다문화 정책들을 보며 있는지 몰랐던 좋은 지원정책이 많이 준비된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련된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 자료 배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국 학부모가 움직여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위기가

정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학부모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지원정책을 알아보아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없고 학부모에게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소극적인 학부모는 추천을 받아도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고, 결국 가장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결정은 법적 대리인인 학부모가 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찮거나 바빠서 신청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부모에게는 동의서 서명만 받고 학교에서 대리 신청을 하는 등의 시스템만 지역 건강가족센터와 학교 사이에 갖춰져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특히나 연속성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링이나 한국어 보충수업 등의 프로그램은 흔히 학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같은 선생님을 또 만날 수 있지만, 강사 채용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정에서의 보살핌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한 선생님과 연속적으로 만나며 관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가족센터 소속 선생님들이 센터에 다니는 다문화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듯, 학교에서 제공되는 보충수업이나 멘토링도 한 선생님과 긴 호흡으로 만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 정책입니다.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오게 된 중도 입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가장 큰 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정책은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90%에 가까운 관산중학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가장 큰 벽은 한국어가 아닌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족과 목표 의식의 결여입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은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공간적, 문화적, 언어적 변화를 겪습니다. 가정 형태의 변화를 겪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들 중 학생의 선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심리 지원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 공부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문화는 우리 사회가 이미 마주한, 앞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올 현실입니다. 2012~202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20%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댓글을 보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다른 댓글을 보면 사람들의 다문화 인식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함께하는 교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 여전히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언어가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식이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도 많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 거처가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GDP 차별적인 외국인 묘사를 반복하는 미디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국력의 계층성, 백인과 유색인 간 인종의 계층성 그리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노동의 계층성에서 비롯된 편견을 극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가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대신, 우리 사회 그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志(뜻 지), 修(닦을 수) 뜻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김지수,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재학생)

志(뜻 지), 修(닦을 수) 뜻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김지수(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재학생)

[성장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진 22살 김지수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 문제로 인해 이혼 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에 엄마의 고향인 중국에서도 살았다가 시골에서도 살았다가 떠돌이 생활처럼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냈고 결국 수원지역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1~2학년 당시 학교생활을 잘했지만,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초등학생일 때 저를 고의적으로 괴롭혔던 친구가 저를 괴롭힌 일들을 자랑하듯 당당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고, 저는 그저 반에서 일어난 친구들과의 작은 문제였던 일을 잘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소문이 저에게 까지 들어온 이후 불안함이 매우 커져 그 자리를 피하고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어서 교실에 들어가 지내보았지만 외면당하는 듯한 그 분위기와 적막이 싫어 더이상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고 교실에 들어가는 날은 더이상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며, 애써 괜찮다고 내려놓는다는 듯, 스스로 안정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들이 걱정의 말투로 “너 그렇게 계속 학교 안 나오면 유급돼”라며 전화까지 해주면서 “학교 와라”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상으로 피하거나 학교 밖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 할 정도로 적응하지 못한 저를 걱정하신 어머니께서는 지인을 통해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인 ‘다모야학교’를 알아봐 주셔서 대안학교로 들어와 학교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센터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학교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 설레는 맘이 가득했으며, 여기엔 학교 친구들과 상관없이 모르는 친구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 생각되어 마음 편하게 대안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보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제 모습을 제 스스로도 알 수 있을 만큼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매일 지낼 때마다 즐거운 일이 많아 행복한 기억을 갖고 학교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중학교 마지막 학년을 졸업까지 ‘다모야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엔 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해 수원시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상담받으면서 다시 학교를 가야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센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받아 미용학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학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거쳐 학교를 입학하였지만, 잘해보자는 초반에 결심과 다르게 그 사이 ‘또 친구들과 틀어지면

어찌지'하는 작은 걱정들로부터 불안함이 다시 커졌고 결국 3개월 만에 자퇴를 결정하여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당시 자퇴를 결정하면서까지 걱정이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후련한 마음이 든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또 다른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퇴 이후에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도 종종 있었고, 어머니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일 때는 제가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제 또래 다른 애들은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다투는 날들이 잦아졌고, 우리 둘 사이에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해 줄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방황했던 시기에 그 힘든 감정을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된 후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어머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는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길엔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 일하면서 느꼈던 부딪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앞으로의 나의 미래 등 오만가지 생각을 하며 퇴근했던 그 퇴근길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께서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권유하셨고, 내일배움카드도 그만뒀던 미용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용학원을 찾아 3개월간 교육을 받고 학원 교육 이수 후 19살 당시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살면서 저에게 큰 행복감과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직원으로 일하는 경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고민을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다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를 다니며 저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무작정 그만두고 고졸 검정고시 공부에 도전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로 진학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진로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검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림그리기를 떠올리며 미술분야로 가고 싶어 홍대 앞이나 광교에 있는 입시 미술학원 등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미대를 입학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준비해야하는 입시전형들이 대부분이었기에 6개월 동안 입시 준비를 해야했던 제게 모두 '입시 준비할 시간이 짧고, 당장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수를 해야하나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하나 걱정할 때, 센터 선생님들과 진로상담선생님이 저를 위해 모두 학교와 학과 전형을 같이 알아봐주셨고,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학입시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학과와 학교를 정해 작년, 2021학번으로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존재]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를 꼽자면 첫 번째는 바로 엄마입니다. 제가 지금의 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매번 힘을 써주신 엄마가 제일 크지만, 저와 엄마의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으로 마냥 즐겁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제 문제로 인해 어머니가 고생하신걸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에서야 이해돼 미안한 감정이 들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이었는데, 이 말이 예전에는 부담으로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제게도 엄마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겠지만 저한테 더욱더 엄마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대안학교 수업참여로 중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고 검정고시 수업을 무료로 가르쳐주셨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1:1 진로상담도 해주셨고, 여러 애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캠프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캠프에서 있었던 일, 강당에서 송년회를 보낸 일, 센터에 있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노래불렀던 일, 바리스타 했던 교실, 검정고시 했던 교실, 여러장소들도 떠오르고 그때 계셨던 선생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정말 나중에 제가 서른 살이 되어도 어릴 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센터가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센터에서 저는 제일 활발했었고, 그나마 많이 떠들었던 곳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 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안 겪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저는 이런 저의 청소년 시절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까지도 이 센터가 적어도 5-6개 정도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산과 수원 이 두 곳 밖에 있지 않았다는 걸 최근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청소년기 즐거움과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센터에서 20대 이상 '이주배경청년 자조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직업상담을 받으면서 대학교 졸업 후에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평범하게, 소소하게 하고싶은거 하면서 살기”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제일 기억이 오래 남고 행복하다는 걸 알기에 힘든 상황에 처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이런 센터 같은 곳에서 추억과 함께 용기를 얻어 힘차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박찬영, 인천대학교 조형미술학부 재학생)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박찬영(인천대학교 조형미술학부 재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3번째 순서 발표를 맡은 박찬영입니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 정책 포럼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다문화 청소년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다문화 아동으로 청소년으로, 지원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부족한 발표지만 제 경험과 의견이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많은 지원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처한 환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에게 가정환경으로 시작하는 자기소개가 이제는 인사를 하듯이 익숙한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태국에서 오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여섯 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에겐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라는 세 가지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렵의 저에게 “행복하니?”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아버지에게 생긴 장애는 부모님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였지 결코 제 삶에 불편과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남들의 도움이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목하고 조금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을 둔 운이 좋고 행복한 아이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가족이 남들과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집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르고 특별하다는 의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힘쓰셨고 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지원금과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과 체험학습, 봉사, 멘토링, 문화, 스포츠 활동 등 어쩌면 평범한 아동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에 마음껏 놀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창의력과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릴 적 빛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만드는 것에 집중할 때 빛이 난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잘하고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것 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래희망에 줄곧 화가를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하고 더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학원을 다니는 것은 부담스

러웠습니다. 당장의 생활수준도 넉넉하지 않은데 미술 학원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을 하던 무렵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에서 미술 학원을 소개해 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때마침 어머니도 좋은 직장을 얻으셨고 금전적인 상황도 점점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는 진지하게 미술이라는 길에 들어서는 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무사히 미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지원정책은 저를 성장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죠. 어릴 때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만큼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가정 내부에 큰 불화가 없었고, 언어적 어려움과 따돌림이나 차별, 정체성 혼란 등 다문화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저는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만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하면 지원금만 있어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체험활동이나 상담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참여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이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램보다 동네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으며, 다문화라는 공통점만 가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끔은 참여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귀찮음이나 부끄러움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원정책을 잘 아시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센터를 일찍 알 수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저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포럼에 발표할 것을 떠올릴 때 제가 지원받은 좋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며 제가 받은 것들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결국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입니다. 가족의 충분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불안정해지기 이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울 때 뻘어주는 도움의 손길만으로도 넘치도록 감사한 일이니깐요. 때문에 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각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가정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단위의 체험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같이 가족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지원정책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면 지원정책의 도움 없이도 여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어 준다면 분명 제가 그랬던 것처럼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슬기로운 한국생활

(권녕일, 영상촬영기사 프리랜서)

슬기로운 한국생활

권녕일(영상촬영기사 프리랜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권녕일입니다. 한국에 온지 7년 되었습니다. 지금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촬영팀 막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시작...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이모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부모님과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중국에서 중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매일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을 따라 경북공도 가고, 문화마을도 가보고, 에버랜드도 가고... 이렇게 한국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시 일을 하셔야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중국에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가족 말고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웠습니다. 또 어리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환경이라서 3개월 동안 방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앞으로 한국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제 성격이 이전 보다 좀 더 내향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한국어와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생활을 못 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진을 좋아하게 되다...

그렇게 세 달을 혼자 방에 있는 저를 부모님께서 집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말하기와 쓰기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집에서 대화할 때 한국어로 해주셔서 듣기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도 몇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었고, 학원에 가지 않을 때에는 그 친구와 같이 서울에 놀러가고 카페도 갔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저는 친구를 따라 사진을 찍어본 후에 재미를 느꼈고, SNS에 올려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사진을 좋아하게 되었고 세뱃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카메라 한 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날 때 마다 틈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생각해 보니 그 취미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이곳에 서게 했네요.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하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며,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2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친구에게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학교 졸업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아쉬웠는데,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증도 받을 수 있고 대학교에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고 설렘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그 곳을 알았더라면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바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꿈다리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바로 검정고시과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 시 소설 문장도 분석해야 되고 낯선 단어도 많이 나와 솔직히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 문장을 읽을 때 끊어 읽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어떤 문장은 읽고 나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음날 배워야 할 내용을 미리 예습하며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여 찾고 과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졌고 내용도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인 선생님과 만나 매일 대화를 하다 보니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 들께서 수업 하실 때 정말 열정적이셨고, 저희를 자기 자식처럼 정성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감도 빨리 사라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다리학교에 다니며 마침내 한 번의 시험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 입학하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 진학을 결심했고, 그런 저를 부모님께서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도 지지해 주셔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사진을 좋아했고, 대학 전공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사진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꿈다리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명대학교 사진학과와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아쉽게도 상명대학교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받으며 합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성균관대학교는 특이하게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1학년 때는 전공수업이 아닌 ISC강의를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SC강의는 외국인 학생이 빨리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 발표 방법, 한국 역사, 수강신청 방법 등을 가르쳐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과정 없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전공수업부터 수강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발표부분인데, ISC수업을 통해서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전공 수업 전에 미리 연습하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 처음 1년이 너무 힘들었고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부터, 교수님의 빠른 강의 속도,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사투리를 쓰셔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습 위주의 전공이어서 교재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연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ISC수업에서 한 교수님의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때는 녹음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 떠올라 2학년 1년 동안은 수업을 거의 다 녹음하고 집에 가서 복습했습니다.

그 덕분에 3학년 때는 녹음을 하지 않고서도 필기하며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국인 친구를 거의 사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팀과제를 할 때도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제를 할 때 서로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지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강의와 과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관심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졸업작품, 단편영화를 준비하며...

마지막 4학년은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연출로서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전사 등에서 한 작품을 연출해야 됩니다. 저는 단편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스텝은 다 동기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배우는 외부에서 섭외했습니다. 단편영화의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두 친구와 자취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지만 두 친구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식당이 바빠져 저도 주말이나 수업이 끝나면 가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같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이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은 외국인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돈 모으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친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또 다른 친구 두 명은 여전히 서울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졸업 영화 내용이 바로 저와 제 친구의 삶을 각색하여 촬영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졸작입니다. 창피할 정도로...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 일원으로서의 시작...

지금 저는 드라마 촬영팀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드라마 촬영팀에 계신 평소 친분이 있는 형을 만나서 그 형의 소개로 방송사(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팀 막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또 지난 작품에서 같이 일했던 형의 소개로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쪽 일은 거의 다 이렇게 서로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촬영팀 막내로서 장비를 옮기고, 감독님이 보시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끊기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뒷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갖다 드려야 하고, 매일 촬영이 끝나면 장비의 개수도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촬영이다 보니 일 할 때는 거의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노동법 때문에 한 달에 최대16일만 일하게 되어 있어 가끔 쉬는 날 도 있습니다.

여전히 편견을 이겨내야 하는 외국인...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에 일을 하면서 여전히 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억울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회 말입니다.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윗사람의 지시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한국인 조수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었는데... 아마도 아직 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저도 더 노력하면 한국사회도 저를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쓴맛'을 좀 느껴본 후에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고 저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조혜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다문화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참가자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발표문을 접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성장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의미있는 만남과 지원들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생생한 목소리일 것이다. 이들의 경험과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양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개별 청소년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모두는 각기 독특하고 개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여된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은 100인 100색의 삶을 마치 하나로 유형화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복지외 조건 조성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실행과정에서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낙인이나 단순화된 편견이 가중된다면 그것 또한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에 '다문화'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등장한 지도 어느새 15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제도 면에서 2006년 4월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6년에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수식어는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을 지칭하면서, 의도치 않게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화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교육부 통계에서는 '다문화학생'으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주민자녀나 다문화가족 자녀로 불리기도 한다. 근래에는 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과정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중도입국' 자녀로 부르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인구집단은 법이나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인구집단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적이 어디인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 모두 외국인은 아닌가,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등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한 하위 요건에 따라 지원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문화사회 논의가 대두되었던 초창기에 주요 관심 사안은 결혼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과 초기 적응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정착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들의 증가로 다문화 정책은 보다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이주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 이슈는 점차 다양한 경로로 한국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세분화된 지원 정책에 대한 모색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라는 키워드는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과 결합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촘촘한 정책 방안을 고려하며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현안은 지역 격차, 소득 격차, 학력 격차, 청년 문제, 주거문제, 취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들과 결합되어 복

잡하게 얽히게 된다. 다문화 이슈는 깔끔 명료한 정책 방향으로 도출되기에는 그 경계와 지형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 개념의 해체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명칭과 개념 논쟁은 존재해왔으나, 한번 사용되기 시작한 명칭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용이 보다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집단화된 지원정책 보다는 이들의 요구에 기반(needs-based)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창구에 대한 정보 제공, 접근성 강화 등 후기청소년 진로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기회 보장,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그리고 그 지원의 지속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를 들으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개별 청소년 스스로 성장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 어려움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다. 일방적인 시혜성 지원은 아무리 많이 제공된다한들, 이주배경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에 궁극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편적 지원 정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후기 청소년으로 일정정도 자신의 꿈을 이루었거나, 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모색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점검해야 하는 '다문화' 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방안 모색에 대해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범주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집단화시키지 않는 묘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방안

(안복현,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장)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방안

안복현(안산원곡초등학교 교장)

네 명의 발표자로부터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고, 다문화가정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교육지원시스템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바수데비 선생님의 이야기(저희학교에도 '박찬들라' 성씨를 가진 형을 둔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성씨가 '찬들라박'인 학생도 있습니다.)에 공감하고 맞춤형 지원과 상담시스템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어렸을 때의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변화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지내 온 김 지수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환경 때문에 여러나라, 친척집, 여러 학교를 전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혼란, 학업의 어려움, 주변 친구와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축하를 드립니다. 공교육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으로서 학교안과 학교밖 청소년으로 구별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찬영학생의 이야기에서 다문화학생이라는 낙인(?)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다문화청소년을 부를 때, '다문화학생', '이주배경학생', '탈북학생' 등 구별 짓는 호칭이 아닌, 한명의 나와 다르지 않는 인격체로 존중하여 '청소년',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권녕일 발표자께서는 외국인학생으로 중도 입학하여 고졸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의 어려운 학업 과정을 거치고 전문직종의 직업인으로서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상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자를 보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성장하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쓴 맛'이 아닌 '단 맛'만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현재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200만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학생의 3.0%(16만여명)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 429명 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학생은 단지 11명뿐(97%)입니다. 인근 초·중학교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6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근간(根幹)이 될, 10년후의 미래 한국사회에 대하여 고민해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은 0.81명으로 "올해는 0.7명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미래사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무용계급'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AI(인공지능)가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리라 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높아지고, 성인은 53.95점에서 52.81점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원인은 2010년초부터 갑자기 증가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

원 정책과 학교현장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성인들의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배타(排他)시 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가 하나로 된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화가 지속된다면,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 부적응자’를 양산시킬수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작용될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처음 다가온 문화충격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친 사례입니다. 그 사건 당사자의 고등학교 동창생은 인터뷰에서 ‘그를 못되게 대했으며, 어떤 경우 잔인하고 비열하기까지 했으며, 물건을 던지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라고 소리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차별과 편견 문화 속에서 학창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률(0.67%)은 전체학생(0.6%)과 유사한 수준이며,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률(0.23%)은 전체학생(0.3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0.95%, 0.28%)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미인정 유학생(63%)을 제외하면 다문화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아닌 일반학생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생각하여 봅니다.

다문화청소년은 함께 공존(共存)해야 할 미래의 한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정체감을 찾아 갈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피부, 언어, 종교, 국가, 생활 모습 등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共感)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입니다. 60~70년대 한국의 청년들이 독일, 일본, 중동으로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 떠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전 학교 근처에서 3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이야기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단골 손님과의 인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런 여행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함께함으로써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불평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문화, 법규, 규칙에 낯설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고, 복장을 함부로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면 금방 고친다고 하십니다. 간혹 고치지 않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그런 현상은 일부 한국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며, 사람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共感)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적과 부모의 출생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라는 언어로 구별하고, 편견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들은 다만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적 배경, 출신배경을 가진 한 명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살아가기 훨씬 쉬워지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모(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고교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다문화학생의 전입생이 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만 계속하여 가르치자니, 눈에 띄는 학습효과는 거의 없고, 수업시간에 멍(?)때리는 학생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글교육프로그램을 꼭 운영해야 하는가' 의문시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조기교육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미 성년의 수준이 다 된 고교생들에게 강요된 '한글교육'보다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가?'하는,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인문학프로그램'의 운영과 멘토가 될 수 있는 '선배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학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학점과 수업일수만을 생각하는 교육활동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아직도 다문화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낄만한 불안한 제도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안산시청 육상선수로 입단한 콩고 출신(2003년 안산에서 태어남)의 다니엘 비웨사 가사마 선수는 중학교 3학년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야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육상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육상선수로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는가?'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 육상선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지역대회가 아닌 상급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대회에서 아무리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1등의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시·도 대회등의 상급 육상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국내선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선의의 규정이라도, 출전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들의 마음은 마냥 유쾌하지만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수의 주류 구성원들에게 사소하게 여겨지고, 선의이지만, 소외받는 소수의 어느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었다면 좋은 규정이나 지침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국적이나 부모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 법규들은 하나씩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강점인 이중언어를 활용한 다중언어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학생과 다문화가 아닌 학생이 서로 '상생'하였다면 합니다.** 이중언어는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최대의 장점입니다. 현재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을 보면, 장점인 이중언어를 활용한 정책은 거의 없으며, 단점인 한국어 배우기만 강요받다 보니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의 강점을 활용한 다중언어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다문화청소년과 한글을 고유어로 사용하는 한국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중언어 학습동아리 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이수 학점화와 운영예산 등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중언어를 이용한 '상생'의 어울림학습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발표해 주신 4명의 발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소에 느꼈던 다문화청소년 교육정책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변화 요구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변화 요구

한경은(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다문화 학생은 어느덧 전국 학생 수 대비 3%에 이르렀고, 이미 많은 학교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본 토론에 참여하면서 기대되는 바는 다문화청소년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며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도는 다양화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이에 본 토론자는 교육청에서 정책의 입안자로 근무했던 경험과 새로운 교육의 형식으로 다문화 교육에 접근하는 학교에 몸담은 현장 실천가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진로 진학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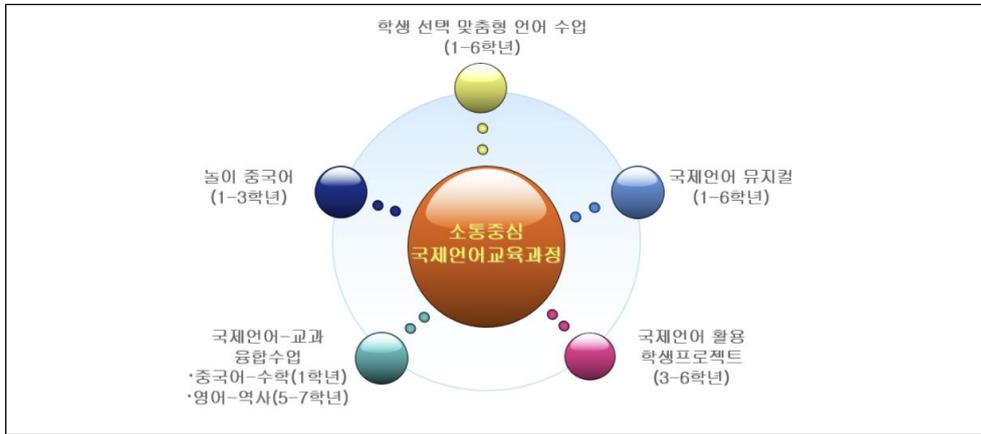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변화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에 배경과 상황에 따라 세분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정책 수혜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의 모습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질적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 지원으로 언어교육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서 심리 교육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비율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는 다른 학교의 경우 재일동포 자녀 또는 일본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적응 교육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소질과 장점을 살린 진로 개발, 진로지도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학교에 적용될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좀 더 세밀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많은 정책은 아쉽게도 가장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한 집단을 동일시화 하는, 편견을 갖기 쉬운 몇 가지 정책으로 정리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다양한 요구와 필요가 있는 수요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현재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에 의미 있는 변화의 시도라 생각된다.

●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요구

첫째, 본 주제발표에서 가장 의미 있게 공감한 부분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추진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제시를 한 부분이다. 토론자 역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바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복지 차원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림1]과 같이 국제언어교육 과정을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언어 수업, 국제언어 융합 수업,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수업 등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더불어 장점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 동기의 강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향후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더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선별적 복지 차원의 시혜대상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동등한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1] 군서미래국제학교(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특화학교) 국제언어교육과정

둘째, 더 많은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에서, 어느 사회에서든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진로와 진학 교육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닌, 한국 사회나 그들의 모국 사회에서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하며 주제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학교의 역할인 학습 지도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기관의 기능을 넘어서, 입국, 진학, 진로 교육과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센터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과 방향성 제언**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교나 다문화교육 기관 현장에서는 느끼기에는 비슷한 정책이 중복되어 시행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본질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정책을 통합하고 연계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나 기관의 행,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제발표자가 언급한 정책 연속성의 보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본 포럼과 같이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안된 의견은 각 기관의 정책 연구의 유의미한 근거가 되고, 각 관련 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본인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공신력 있는 정책 연구기관의 포럼과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렇게 수립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시달되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본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각 기관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적인 후속 연구와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과 도약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사)

공감과 도약

변경환(한국폴리텍 다듬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제천에 있는 한국폴리텍 다듬고등학교 변경환 교무부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기술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2012년 개교 후 현재까지 333명의 다문화 청년들을 사회로 진출시킨 학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접하면서 저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이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의한’ 정책들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신 네 분의 발표자에게 진심으로 공감과 감사를 드립니다.

1. 바수데비 선생님

먼저 바수데비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선생님의 성장과정과 지금의 교단에 서기까지 겪어 온 경험들이 교사로서 무척 소중한 보물이 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다문화가정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선생님은 다문화가정의 법적 지위가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단지 국제결혼 가정만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김지수님

학교를 중퇴하고 미용학원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경험, 그리고 고졸검정고시 합격과 대학 진학까지 김지수님의 진로는 마치 풍랑을 겪은 보물선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김지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진로상담 및 지도의 주요 역할을 누가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위(WEE)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습니다.

3. 박찬영님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도움을 받은 박찬영님의 진로발달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대학 조형미술학과 입학까지 성장해가면서 다문화 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많이 다루어주셨고,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도 필요로 함에 저 역시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다문화 지원정책의 부정적 측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다문화나 역다문화 등의 용어가 산재하는 지금 박찬영님이 생각하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권녕일님

어머니와의 이별 후 이모님께 의탁하여 살아온 과정, 그리고 중도입국 후 한국사회에서의 방황과 진로를 찾아간 과정을 보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비슷한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원과 사진 찍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졸검정고시까지 합격한 후 대학도 진학하고 지금은 촬영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참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 끝머리에 “쓴맛 후에 좋은 날이 올거다”라는 말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생겼는데 현장에서 일하기까지 국적, 비자, 체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귀화를 하지 못한 중도입국자녀들이 대부분 가지는 애로사항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네 분의 발표자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각자가 지니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네 분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또한 앞으로도 높게 도약하시기를 응원하며 마칩니다.

기회를 주는 한국사회, 기회를 얻다

(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기회를 주는 한국사회, 기회를 얻다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토론을 시작하며

바수데비 선생님과 학생들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14년여간 이주배경의 아이들을 만나온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기관,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정책과 사업들, 성숙하지 못한 지역사회, 경험이 부족한 실천가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결국에 성장하고자 만 수많은 아이들 덕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20대 청년으로 자라 스스로의 성장과정을 돌아보며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내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동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사회가 아이들에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신 연구원과 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들

아동청소년들을 만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통제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최대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회'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탐색할 수 있는 기회, 환경의 장벽을 넘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 만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기회, 실패하고 중단해도 다시 시작하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을 온전히 찾고 또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시간 이러한 기회들은 성숙하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 전달되곤 했습니다. 과잉 일반화를 통한 획일적 방법도 있었고, 권리보다는 동정심이나 편견을 배경으로 제공되기도 했고, 서비스 제공자(후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벤트성 기회들도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어서, 부모가 원해서, 뭔지도 모르고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역할별에 대한 불편감으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낙인으로 다문화를 각인시킨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참여와 탐색, 도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돌아가 최대한 많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제와 전망

첫째,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되어진 다문화가정은 과거 이주당사자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로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이민 그 자체는 줄어들거나 정체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들보다는 자녀들에게로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발달단계별 정책적 고민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의 연령대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취학 또는 초등저학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점차 관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었기에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들은 당장의 문제들을 따라가기 바빴고, 다재다능사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초등저학년까지의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적 관심은 자녀들로 이동한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이거나 획기적인 사업들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센터에서의 자녀지원 사업들은 후원이나 봉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사회포용 안전망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자녀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이슈들에게로 정책적 관심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서안정 상담과 진로취업지원은 요구되어지는 전문역량이 엄연히 다른 분야임에도 1명의 실무자가 두 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규사업을 모든 가족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른 기회로 작동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센터의 일부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개인의 안정적 정착에서 그 자녀들을 성장에만 집중하다보니 서비스와 정책이 개별화되는 우려를 범하곤 합니다. 발표문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제는 가족단위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과 안산의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사례관리를 실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상당부분의 서비스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들 속에 가족단위에 대한 접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센터들은 명칭에서와 같이 청소년에 방점을 두고 있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다보니 각기 다른 정체성과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사업 영역이 정해져 있다

거나,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못하다보니 이슈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슈를 쫓아가다 보면 적은 인력으로 가족단위의 실천까지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문·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캠프, 행복한 가족 등 가족 단위의 사업들을 기본선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양육자와 아이들을 함께 만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기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중심으로 질적·양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욕구 순위의 가장 1 순위가 자녀 돌봄과 관계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등 가족관계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단위의 단단한 관계형성은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문화·관계개선 사업들은 비다문화가정과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음을 여러 사업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유하고 특별한 발달단계의 특성과 욕구들을 이해하는 동시에 생태체계적 관점과 가족단위의 실천관점 및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실천이 어느단위에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중국·고려인동포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포들로 구성된 이 가족들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의 중간지대에서 정확히 어디에 소속을 두어야할지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은 아닌 그 속에서 변화하는 이슈들을 누가 어떻게 모아내고 정책과 서비스로 구성해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전담하는 단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도 가족센터도 이들을 2차적인 그룹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흥시만 하더라도 결혼이민자들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동포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되면서 투표권행사와 더불어 정치적 세력화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등 지역의 상권과 정치, 주거문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동반입국하여 장기적으로 정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동포 자녀들의 연령도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 비해 중국동포의 자녀들조차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학교와 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포가정들과 동반 입국하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역시 가족단위, 지역사회 단위에서 건강하게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합해나갈 전달체계 고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제 다문화정책은 이민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질의 인력들을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가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빛과 어둠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자리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고, 앞의 발표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민정책이 기존 다문화정책의 어둠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지금당장의 필요를 넘어 미래에 대한 준비, 즉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 사회 및 정책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포용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사회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시 그것은 한국사회가 어떤 기회를 얻느냐와 결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경우 정부도 지자체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권 및 사회포용 차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합니다. 그 사업들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업은 저절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소속되어지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책입안 단위들이 전달체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적당히 프로그램 몇 개로 그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사업을 구성해도 그 사업을 담을 적절한 그릇이 그 지역사회에 없어서 난감해 하곤 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핵심 당사자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탄탄한 그릇으로 있어야 그 안에 사업들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찾아와 기회를 얻고 쉴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발이 땅에 닿아야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무리하며

기회는 최대한 고르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주배경 청소년이든 다문화 청소년이든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상담도 필요하고, 진로체험이나 코칭도 필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가족단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기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기회가 있고,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년기에 필요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생길수도 안생길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생은 언젠가 반드시 청소년이 되고, 그들은 반드시 청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제공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제공받는 당사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열심히 토론하고 다듬어나가며 더 건강하고 다양한 기회를 최대한 고르게 제공했을 때 그것이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한국사회가 마주할 새로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 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사회가 갖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주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주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

이승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민은 미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예술과 과학분야는 그 발전을 위해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다. 다양성으로부터 대화와 창의적 사고가 시작되고 그것은 혁신을 촉진한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가능하다.”

[빌책재단(Vilcek Foundation) 예술과학분야의 이민자 재단]

최근 5~6년간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청소년기 후기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정책일 것이다. 국내 출생의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동포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가정의 이주배경 청소년 또한 정주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현장은 이들의 성장과 함께 선구자적인 자세로 사업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동시에 사회에 진출한 이주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에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의 지원사원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간 지원체계의 연계의 중요성이다. **셋째**는 정보격차의 해소의 중요성이며, **넷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수 데비씨가 지적한 것처럼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결핍가설에 근거한 보상교육에서 성장지원과 역량발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자원 연계 체계의 구축의 중요성은 바수 데비씨가 지적한 욕구해소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심리정서적 지원이 급하게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이 있는데, 이를 지원해줄 자원이 없을 때 지역자원 네트워크는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대상에게 연결되도록 해준다. 통역자원의 연계도 정착시기 이주청소년의 안전망이 되어준다. 예를 들면 언어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내 갈등이 폭력으로 나아가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어지원, 심리정서지원, 통합문화활동 지원, 진로진학 지원, 통역단 파견, 긴급지원(주거, 생계, 의료, 교육)을 위한 자원연계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이주청소년과 서비스를 이어준다.

둘째, 지역간 자원연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이주배경 청소년의 국내이동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주민) 노동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이주하는 부모님을 따라 청소년들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청주나 김해, 경주, 광주 등 공업단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새롭게 형성되는 이주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청소년은 그만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김지수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지역 전문기관은 안산과 수

원, 그리고 최근 서울 서남권지역에 있는 세 곳이 전부이다. 당장 이를 늘릴 수 없다면, 가족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이는 박찬영씨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발표자가 지적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정보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에서 자주 취업박람회나 진로상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권녕일씨가 말한 작업현장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 한국어 소통은 한국사람은 알아듣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각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함께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노이즈가 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인터뷰한 이주 청년은 SNS나 이메일을 통한 홍보물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직관적으로 큰 간판에 중국어나 러시아어로 “진로상담”이라고 홍보해달라고 하였다.

코로나시기에 이주민을 위한 방역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다. 최근 사이의 흠뻑쇼에서 무대철거작업을 하던 몽골청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기사를 본 순간 이 몽골청년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을 위한 정보격차는 목숨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저희 센터에서 인터뷰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청소년은 안전교육을 할 때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위험신호가 전달되는 방식, 그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 등이 모두 문화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안전교육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정보격차의 해소가 여러 개의 외국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그 ‘취업박람회’가 중국어로 씌어있다고 해서 그에 적절한 심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양계민 외(2021)는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 비교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은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38.9%~71.4%)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반면 비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1.0%)).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센터 자체에서 인터뷰한 청년은 직업훈련이 진짜 필요한데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다. 김진희 외(2020)는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에서 수도권 다문화 청년의 특징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상의할 사람, 특히 조언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사회적 관계의 수가 적고 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친밀한 인적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하며, 이 플랫폼 안에서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진로 정보공유 등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반이 된 이주배경 청년은 자기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네트워크라고 했다. 한국학생들은 ‘동아리다, 클럽이다’ 하고 만들어서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주는데 자신은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안산에는 청년사업을 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센터가 있는데, 두 센터 모두 청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별별청년’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나 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만 15~39세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동아리·소모임 청년 커뮤니티에 최대 100만원까지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년에 2회 소통교류회를 열어 지원받는 모든 동아리가 참여하며 이를 통해 모임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5개팀의 100여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교류회에는 75명 참여하였다고 한다. 청년기에는 직접 사업보다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사회적관계망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 역시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수 데비씨가 잘 말씀해주었다. 유럽의 초기 이민국가들이 이주민 통합을 위해 했던 것은 주류 언어교육이었다. 이주민이 이민국가에 통합되는 데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즉 이주국의 언어교육을 위주로 지원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핍의 가설에 근거한 보상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역량과 학업능력 차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동성 외, 2013).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교육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이주민의 결여된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숙한 이주국의 언어에 가려진 재능을 발견하는데 있다. 베리(John Berry) 모형에서처럼 이주청소년이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와 이주국인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통합과 포용이 가능하며 그런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와 그것을 실현하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을 때 제대로 된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글머리에 적은 빌첵 재단은 체코 이주민이 2000년에 세운 재단이다. 이주민이 그가 가진 문화적 혼종성으로 예술과 과학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적을 남겨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을 때 상을 준다. 그리고 상금을 주어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도록 장려한다. 현재 한국의 1세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이런 성공의 모델이 될 때 뒤에 오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더 이상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문화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라는 질문을 멈추어 보자.

〈참고문헌〉

김진희 외(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양계민 외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 연구, Vol.6, No.1, pp 51-72.

https://www.youtube.com/watch?v=Jl_5mtrvkvk 'The Vilcek Foundation: Mission and Vision. 2022.8월 현재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정책

인 쇄 2022년 8월 12일

발 행 2022년 8월 1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